문명사적 비전을 찾아

金 璟 東 / 서울대教授, 社會學

꿈을 잃은 군상의 시대

"비전"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유행어처럼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사회의 절망감이 오히려 반사작용을 일으켜 누군가 앞날을 속시원하게 보여주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정치는 오리무중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경제는 언제 다시 위기가 몰아닥칠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며, 사회는 갈수록 한숨만 자아내는 혼란으로 치닫는 듯한 긴박한 현실이 어두운 터널 저 편의 한 줄기 빛을 희구하게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비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지라, 차제에 큰 사전을 검색하기로 했다. 우선 시력, 시야라는 평범한 말뜻이 있다. 다음은, 장래를 꿰뚫어 보는 힘, 예견력 또는 선견지명, 통찰력, 상상력을 언급하면서, 영문으로 "intelligent foresight"(지적인 선견의 통찰력)라는 주석이 붙었다. 영어의 foresight는 장래에 대한 신중한 배려를 뜻하기도 하며, intelligent란 높은 지능으로 이해가 빠른 명석하고 총명한 지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만 해도 만만찮은 말이라 하겠는데, 이어 나오는 뜻풀이는 더욱 흥미롭다. 신(神)이나 영혼의 힘으로 보는 계시의 체험, 유령과 같은 환상, 환영, 그리고 몽상이나 공상을 의미한다. 이어서, visionary라는 단어를 보면, 비실제적, 비실용적, 실현불가능한, 순전히 공론적이고 이상적, 유토피아적, 공상적, 낭만적이라는 뜻을 담는 말로서, 그런 꿈을 꾸는 낭만적인 몽상가(dreamer)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쩌면 이 시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몹시도 희귀한 시대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람들이다. 누구나 당장에 실현가능한 실질적이고 실속있는 일에 매달려 자기중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말초적 쾌락을 탐닉하기에 급급한 일차원적이고 단기적인 삶에 파묻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먼 훗날의 꿈 같은 것은 안중(즉 시야, vision)에도 없고, 그날 그날 눈앞에 닥친 일에 몰두하는 근시안적 인생이 판을 친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찰, 영혼의 구원을 지향하는 도덕적 완성,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낭만의 추구, 혹은 성숙한 사회를 일구려는 헌신 같은 덕목이 관심의 대상이 될리가 없고 따라서 무의미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그처럼 꿈이 없는 삶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

디지털 시대는 꿈이 만발하는 세계

우리는 지금 좋건 싫건 간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 말이 그렇지 이른바 디지털화가 초래한 변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자아내는 정보화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서 정보처리의 한계를 무너뜨려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한계 뿐이다. 꿈이 진실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세상이 온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지 못하는 " 엉뚱한 생각 "을 수시로 하는 몽상가들의 판이 벌어지고 있음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혁신의 역사만 보아도, 하늘을 날아 오르는 꿈을 그림으로 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기에 수세기 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으며, 19세기 공상소설가 쥴 베르느(Jules Verne)가 꿈꾸었던 핵잠수함 노틸러스호는 20세기에 현실로 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1960년대 중반의 일이다. 미국 본토의 주요 대학과 산업체 시찰 여행을 하던 중 온도 자동조절 혹은 항온 장치인 써모스탯(thermostat) 제조업체인 하니웰(Honeywell)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 회사의 홍보담당자에게서 들었던 얘기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례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연구개발을 위해서 일년에 여러 명의 전문분야 박사를 초빙하는데, 연봉이 학계나 일반 연구기관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은 물론이고 이들 박사연구원들에게는 특별한 과제를 준 다음 최고의 대우를 해 주기로 계약을 한다. 우선 자기가 머물고 싶은 휴양지나 주거지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일년 내내 하는 일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 대신, 연말에 혹은 연구 기간이 끝날 때에 가서 맡은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조건이다. 그 동안 각 연구자는 낚시를 하든 골프를 치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여가를 즐기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의 기업체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엉뚱한 생각을 하며

꿈을 꾸는 몽상가들을배양하는데 온갖 투자와 정성을 경주해 오고 있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신경제를 선도하는미국이 그와 같은 저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의 단면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의바탕은 우선적으로교육이며, 교육의 이면에는사회와 사회를 움직이는사람들의 의식 및 제도가 자리잡고있다.

우리는 지금 좋건 싫건 간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 말이그렇지 이른바 디지털화가초래한 변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다. 이제남은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한계 뿐이다. 꿈이 진실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꿈을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세상이 온 것이다.

몇해 전 하바드대학의명예교수인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을 만났을 때 역시 그렇구나하는 명언을 들었다. 연말연시의특별기획 프로그램을위한 TV 대담에서, 21세기가 되면 동아시아가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빙그레 웃음을 띠우고 난 벨교수의 대답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물론,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이룩하고 나면 한 · 중 · 일삼국을 주축으로하는 동아시아가 경제적으로막강한 지역권을 이루게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가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리라는예측은 성급하다는 말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경제개발은기술혁신을필수조건으로하며, 둘째 기술혁신은 기초과학 분야의 " 이론적지식 "이 필수조건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이론적 지식은 대학원 교육에서 생성시키는것이며,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는 대학원 교육은 아직도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미국이 단연코 앞서 있다고 자신있게말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당장의 실용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기초이론의지식을 탐구하는 꿈꾸는 사람들을 올바로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이 없이는 자생적 기술혁신이무망하다는주장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경험담을소개한다. 재작년 미국에서한국학 강의를 하러 갔다가 현지에 정착하여 벤처기업을일구고 있는 서울대학교동문을 만났다. 이 사람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MIT에서 박사학위를받은 수재인데, 그가 미국 유학 첫 해에 겪은 일을 이렇게 전했다. 첫 학기 시험을 치렀더니A+ 학점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담당교수가불러서 하는 말이 이번은 처음이고 답안이 너무 완벽해서 좋은 점수를 주었지만, 다음부터는이런 답안에 대해서는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이 이룩한 연구와 이론은 빈틈없이 썼지만, 학생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했다. 장차 박사학위를받고

연구생활을할 의향이라면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학창시절에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미국 대학원 교육의 강점을 보여 주는 동시에 우리나라교육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상상력, 창의력이 최대의 무기인데, 우리의 교육이 그 동안 기존 지식의 일방적 주입과 기억에 치중했으며 그렇게 습득한 지식은 시험만 치고 나면 무용지물이되는 한 묶음의 단순정보에 불과하다는점은 이제 삼척동자도알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존의 지식이나 재탕하는 일에 매달렸다가는당장에 퇴출당할 운명이 될 뿐이고, 나날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무한경쟁에서살아남을수 있다. 그러자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이란 intelligent foresight라고 했을 때, 지적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조건과 장래에 대한 신중한 배려에 바탕한 선견지명이라말한 것을 상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신중한 배려라는 말이 함축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인간의 도덕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 신지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사회의총아로 부상하고 있는 신지식인은마치 반짝 아이디어나 생각해내서이를 상업화하여성공한 사람들인 양 대중매체에서그리고 있는데, 이런 발상에는 위험이 따른다. 진정한 지식은 역시 탄탄한 이론적 지식의 바탕 위에 형성하는 것이어야지, 이론의 뒷받침 없이 서툴게 활용하는지식은 결국 경쟁력을갖추기가 어렵고 생명이 길지 못한 법이다. 얼치기 지식은 사실상 단순정보에불과하고, 그런 것으로 신지식인 행세를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앞서 말풀이에서비전이란 intelligent foresight라고 했을 때, 지적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조건과 장래에 대한 신중한 배려에 바탕한 선견지명이라말한 것을 상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신중한 배려라는 말이 함축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인간의 도덕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외국에서 문제가 될 때 지적받는 요소는 디자인의 조잡함과 제품의 끝마무리가허술하다는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독창성의 부족과 함께 일에 대한 헌신의 정신, 즉 도덕성의 결여가 도사리고있다. 일을 적당히 해치우는데 능하지, 일을 내 일처럼 제대로 하겠다는 정신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끝마무리가허술하다는지적이다. 우리사회에만연한 책임의식의 결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엉뚱한 생각을 수용할 줄 아는 사회

결국, 우리사회는엉뚱한 생각을 수용할 태세가 너무도 부족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창의력을키우지 못하는 까닭은 기존지식의일방적 주입에 치우쳐서스스로 생각하고추리하고 고안하고창조하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우선 획일적이고 경직한 생각과 구조가 지배적이라는주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사회구조가부드럽지 못하고 굳어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도 경직하고 일차원적이라융통성이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 꿈을 꾸는 몽상가는사회의 주류에서배제당하기십상이고, 창의성과 상상력은 부드러운 사회, 유연한 의식을 양식처럼필요로 하는 법이다.

여기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조건으로 사회의 도덕성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아무리창의력이 뛰어나고 꿈을 잘 꾼다 해도, 그러한능력과 자질을 비인간적이고반사회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이는 우리사회 자체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전지구적디지털 시대의 국제 고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우리사회에서는교육목표또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하다. 가정에서부터학교에 이르는 전 교육의 과정에서 우리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계속 추구하도록강요받다시피하는 목표는 한 마디로 잘라 말해서 " 출세 " 뿐이며, 개인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목표를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다. 교육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목적적 가치는 뒤로 하고 출세를 위한 수단적 가치만이판을 치는 사회다. 교육의 과정도 새 세대가 자유롭게사유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 장려는 못할 망정 조금이라도정규적인 과정과 행동규범에서 벗어나면무조건 백안시하고일탈자로취급하는획일성과경직성이특징이다.

결국 사회 전체가 출세지향으로가치관이 굳어 있고, 지위 획득을 위한 경로가 경직하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세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이르는 수단에 대한 편법주의적태도와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온갖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극도의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고서도선진사회가되겠다면가소로운 일이 될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조직원리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고따라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할 요소는 권위주의와그에 부수하는특권의식이다. 사실상 경직한 사회의 주원인이 바로 권위주의에있고, 출세주의의근원이 바로 특권의식이기때문이다. 누구나

같은 인간으로서존중받아야하고, 사회의 자원 배분에서도특별히 많은 특권을 독점하는 사회구조는빨리 시정해야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요소가 우리사회의혁신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먼저 세상에 사는 목표 자체를 다양화해야하고, 굳어진 제도적 경로가 아니라도새롭고 다각적인방법으로자아실현을 이루면서사회에 긍정적인기여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나 기업이나 조직체의 짜임새와 운영에서 유연성과 개방성을 최대한 살리는 길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이 어려워지는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조건으로 사회의 도덕성을정상화하는노력이 시급하다.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고 꿈을 잘 꾼다 해도,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목적에 악용하는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이는 우리사회 자체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일일 뿐 아니라, 전지구적 디지털 시대의 국제 고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명사적 비전의 요청

얼마 전 영국의 저명한 공과대학 총장이 대학교육에관한 국제회의에서발표한 특이한 대학관을소개하고자한다. 영어식 표현으로도엉뚱한 “Blue Skies Research University ” (우리말로는구름잡는 연구중심 대학이라할까)라는 유형의 대학을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푸른 창공을 쳐다 보며 꿈을 꾸듯 고차원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는사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구름잡는 생각이나 하는 연구중심 대학은 단순히 과학 분야만을 장려해서는절름발이에머물고 말 것이다. 인문학적 교양이 튼튼한 기초를 이루는 교육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온전할 수가 있다. 창의성과도덕성이 겸비한 교육과 연구의 필수조건이기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진실로 요구하는과제는 순전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문명적인 수준에서문명사적 비전을 탐색하는일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바로 푸른 창공을 향한 연구가 제격이다. 문명이란 기술혁신에힘입어 형성한 도시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개명하게 된 때부터 누려온 문화의 총체를 일컫는

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해야 할 성질의 기술혁신이 진행중이다. 흔히 패러다임의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실로 엉뚱한 생각이 활발히 작동해야할 때라 하겠다.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시대의 숙명적인 변혁을 염두에 둔 진솔한 자세로 문명사적 비전을 추구할 것을 감히 제안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노력에서 미래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벤처기업도키워야하고 나스닥도참여해야할 줄 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신천년대, 새로운 세기를 맞아 신문명의 창조에 우리가 앞장서겠다는다부진 꿈을 키우는 방향으로관심을 돌리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안간힘 써도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전지구화의물결에소극적으로휩쓸려 정신없이 떠내려가며 생존에 급급한 우리 스스로의모습이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가 문명사적 비전을구상하고제시하는적극적인자세로 이 과업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하루 속히 문명론적 쟁점들에 대한 " 푸른창공에 떠서 구름잡는 " 사고와담론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문명론적쟁점들이란우선 인간과 자연과 기술과 도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일부터 시작하여, 인간과 사회, 시장과 국가와 시민사회와세계체계의 구도를 재조정하는과제를 내포하며, 개인과 집단, 자유와 질서, 권리와 의무(책임), 게마인샤프트와게젤샤프트등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고, 욕망과 이상, 육신과 마음, 물질과 정신, 감성과 이성을 둘러싼 인간본성의문제도 다루어야 하며, 비속한 저급문화와고상한 교양문화, 실용문화와인문학적 문화, 민족문화와코스모폴리탄문화, 그리고 문자 문화와 디지털 문화와 같은 문화의 긴장관계에대해서도 진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야말로너무도 거창하고 당장에 해답을 얻기가 수월하지 않은 이슈에 매달린다는느낌이 들 줄 안다. 그렇다고이 같은 생각을 그저 엉뚱하고 쓸모없는것이라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시대의 숙명적인 변혁을 염두에 둔 진솔한 자세로 문명사적 비전을 추구할 것을 감히 제안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노력에서 미래의 가능성이열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들에 집중해 있는 동안 문명은 제 갈길을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고, 그러한 근대산업문명의연장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몰아 올지는 상상하기가그다지 어렵지 않다. 드높은 창공을 향해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V&S